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전남지역 민심도 민주당에 따끔한 회초리들었다

**전남도의회 민주당 입지는 견고
 후보별 득표율서 민심이반 현상
 무소속 후보, 민주당 탄압 추격
 보성 선거구, 무소속 표 더 많아**

더불어민주당이 4·7보궐선거에서 순천과 고흥지역 전남도의회 2석, 보성군의회 1석을 수성한 가운데 전남도의회 내 민주당의 입지가 더욱 견고해졌다.

하지만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에 10석을 몰아줬던 전남지역 민

심에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민주당이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순천1·고흥2 선거구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한준욱 의원과 박선준 의원이 이날부터 의원직을 수행한다. 상임위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 한준욱 의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 박선준 의원을 배정한다.

보궐선거 결과 민주당이 광역의원 2석을 차지하면서 전남도의회 의원 구성은 민주당 53명, 정의당 2명, 민생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재편돼 민주당의 '일당독점' 체제가 강화됐다.

하지만 후보별 득표율에서는 민주당이 결코 웃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에 보궐선거가 치러진 곳 중 고흥과 보

성은 무소속이 민주당 후보를 탄압까지 추격했다. 순천도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방문해 지원사격까지 했으나 투표율이 26.3%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유권자의 관심을 얻는 데 실패했다.

특히 보성은 민주당 후보가 무소속 후보를 상대로 단 5표 차이로 '탄압이' 당선된 데다, 무소속 후보 두 명이 획득한 표가 민주당보다 많다.

전남이 민주당의 '뒷받'인 데다 선거운동 기간 중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던 후보들이 무소속 후보를 상대로 거둔 성적표지곤 초라하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전남지역 국회의원 10석 모두를 석권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전남지역 선거구 3곳 중 여성 2명과 청년 1명을 공천한 것은 공천혁신이라는 평가다.

민주당 소속 전남도의회 전경선 운영위원장은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도민들이 민주당에 따끔한 회초리를 든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민생을 더 잘 챙겨야 한다는 준엄한 메시지다”고 평가했다.

김성남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여성과 청년을 공천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었지만,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실망감이 이번 보궐선거에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목포시 “유달경기장 매각
 높아진 브랜드가치 확인”**

예정이 보다 3.3배 ↑ ...미래가치 반영

목포시는 8일 “유달경기장 부지가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으로 매각된 것은 지역의 높아진 브랜드가치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진행된 유달경기장 부지 매각을 위한 공개입찰 개찰 결과, 유달경기장은 936억 7400만원에 낙찰됐다. 이는 당초 매각예정이던 281억 3000만원보다 333% 높은 금액이다.

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유달경기장의 토지·건물·시설물을 최고가방식의 일반 경쟁 입찰로 일괄 매각하는 공고를 진행했다. 그 결과 29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서울 소재의 중견업체에 최종 낙찰됐다.

최고가 2·3위 기업이 800억원대에 응찰하는 등 유달경기장부지 매각은 높은 열기를 보였다.

시는 8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이어 오는 6월 7일까지 잔금이 납부되면 유달경기장부지의 소유권은 업체로 이전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유달경기장 매각이 전국의 업계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파격적인 금액에 매각된 것은 현재와 미래의 도시브랜드 가치가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목포시는 신재생에너지·수산식품·관광 등 3대전략산업이 1000억원대의 정부 사업과 맞물리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목포=박정수 기자



‘화재 대응 훈련’ 입·코 가리고 대피하는 어린이들

8일 오전 광주 북구 한 어린이집에서 북구청 주관 화재 대응 대피훈련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들이 입과 코를 손으로 가리고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대피하고 있다.

장성군 산하 모든 부서 6월부터 점심시간에 쉰다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중식시간 휴무제’ 노조 “방문 거의 없고 필요 이상 행정력 들어”

장성군도 공무원 복지 증진을 위해 ‘중식시간 휴무제’를 도입한다.

장성군은 오는 6월 1일부터 균형 1층 민원봉사과와 보건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모든

산하 부서를 대상으로 ‘중식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중식시간 휴무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중식시간(낮 12시~오후 1시)은 근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휴식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간 주민 편의

를 위해 민원봉사과와 보건소, 읍·면 등 일부 부서에 한해 교대근무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장성군공무원노조에서 중식시간 방문 민원이 거의 없고, 필요 이상의 행정력이 들 어간다는 개선요구를 했다.

장성군은 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동취재본부

**광주시, 유증상 확진 40%
 주저하다가 ‘때 늦은 검사’**

의료진 ‘권고 부담’·환자 ‘설마’ 끝드타입 놓쳐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10명 가운데 4명꼴로 유증상 확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단검사 권고에 대한 의료진의 부담과 환자들의 ‘설마’ 심리, 선별진료소 접근성 문제 등으로 대부분 검사 끝드타입을 놓쳐 n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올 들어 3월 말까지 코로나19 확진자 1114명 가운데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유증상자는 446명, 비율로는 40%에 달했다. 전국 평균 23%의 배에 가까운 수치다. 월별로는 1월 37.4%(717명 중 268명), 2월 46.2%(277명 중 128명), 3월 41.7%(120명 중 50명)다.

유증상자 가운데 상당수는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사흘 이상 지난 뒤 진단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진단 지연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의사의 경우 환자에게 진단검사를 권고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증상의 불확실성 탓에, 환자는 검사에 대한 비용과 시간, 선별진료소에 대한 접근성 제약 등으로 제때 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검사 권고시 유증상자에 대한 보건소 통보나 관리사 어려움이 있는 점도 현실적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처럼 검사 끝드타입을 놓치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으로 번지거나 n차 감염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광주에서는 지난 2월 유증상의 최초 확진 이후 보험사 콜센터와 명절 가족 모임과 관련해 각각 114명과 23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바 있다. 가족 간 감염으로도 먼저 1월에만 34가구(3인 이상) 138명이 도미노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발열과 인후통 등 유증상자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며 “증상이 있을 때는 무조건 집에 머물고 즉시 검사를 받는 등 기본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설마 코로나일까, 감기일까’ 야하는 생각도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최윤희 기자

토요일은 쉽다 홈페이지 i-honam.com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

슬기로운
집콕생활!

위드 코로나 시대! 올해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즐겨주세요

왕인ONTACT

2021 영암왕인문화축제
On-Line Yeongam Wangin Culture Festival 2021

4. 1. 목 ~ 4. 16. 금

www.왕인문화축제.com

YouTube **영암왕인TV**

·특집 다큐 ‘왕인박사 랜선으로 일본가요!’

·왕인박사 학술강연회

·제31회 왕인박사 추모 한시지상백일장

·천인릴레이 천인천자문

·집콕놀이! 왕인키트

·집콕! 챌린지

·집콕ON! 글로벌 왕인 홍보단

·왕인박사 추모 헌다례와 문화 강연

·유투버와 떠나는 3인 3색 랜선 영암여행

·기찬영암 브이로그

·영암여행 온라인 사진·영상 공모전

·혜택 가득! 기찬영암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 영암 마켓

·온택트 영암예술무대

·온택트 개막콘서트

·공개방송 영암온에어 ‘즐거운 오후 2시’ (11개 읍·면)

·온택트 폐막행사

영암군
YEONGAM-GUN

주관 |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문의전화 | 061-470-2347